

## 가을철 각 동호회 행사 성황리에 끝나

낙시대회 10월 5일  
바둑대회 11월 7일

등산대회 10월 31일  
골프대회 11월 1일

낙시대회는 10월 5일 강화도 선두포에서 납회를 겸해 열렸다. 31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이날 대회에서 박병선(편제)회원이 21.5cm의 봉어를 낚아 우승을 차지했다. 2등은 19cm의 봉어를 낚은 송재선(업무)회원, 3등은 정종국(관리) 회원이 각각 수상했다. 행운상은 20.5cm 피라미를 낚은 김지현(업무)회원이 차지했다. 이날 대회는 태풍의 여파로 빗방울이 오락가락해서 조항이 부진했다. 대회가 끝난 뒤 회원들은 사무처가 제공한 닭도리탕 오찬을 끝으로 내년 봄 시조회를 기약했다. 이날 낙시동호회는 현 이승문 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하고, 신임회장에 김종수, 총무에 박병선 회원을 선임했다.

등산대회는 10월 31일 오전 북한산 둘레길 2구간에서 열렸다. 61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이날 산행은, 오전 10시 15분 우이동 이 준 열사 묘역 입구를 출발해 우이동 종점에 이르기까지 6.1km의 둘레길 구간에서 이루어졌다. 이연현 사우회장은 출발에 앞서 “화창한 가을 날씨 속에 모든 회원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을 하길 바란다”면서 파이팅을 선창했고 참가 회원들

도 모두 파이팅을 외쳐 화답했다. 등산동호회 박한성 회장 선도로 10여분간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 회원들은 독립유공자 묘역과 손병희 선생 묘소에 이르는 6km 구간의 둘레길을 산행하면서 화창한 날씨에 붉게 물들어 가는 낙엽을 즐겼다.

회원들은 산행 후 ‘거북이네 집’에서 식사와 뒤풀이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박한성 회장은 등산 모자와 바람막이 자켓, 장갑 등 60여점의 등산용 애장품을 추첨상품으로 내놓아 참가한 모든 회원들이 한 점씩 선물 받았다. 박한성 회장은 “각종 등반대회 참가 상품 등 애장품들을 혼자 갖고 있기보다 여러 회원들의 등반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내놓았다”라고 소감을 밝혀 회원들로 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바둑대회는 11월 7일 오전 9시 30분 30여명의 회원들이 참가, A조와 B조로 나뉘어 열전을 벌인 끝에 A조에서는 김진홍(관리)총무가 우승, 한박무(보도)회원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B조에서는 이상욱(관리)회원이 우승, 정영수(관리)회원이 준우승을 했다. 대회가 끝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한 박종규 회

## 올해 송년모임은 취소합니다

최근 방송 환경이 더 어려워지고, 본사도 경영 적자가 불가피함에 따라 사우회는 12월 13일로 예정했던 송년모임을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이 사실을 본사에 통고했다. 이연현 사우회장은 11월 12일에 긴급 소집한 회장단 회의에서 “본사 경영이 지난해에 이어 대폭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후배들에게 큰 짐을 지우는 것은 선배로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고 하면서 “송년모임을 취소하는데 대해 회원 여러분들께서 해량海諒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마다 송년회 때 배포하던 ‘회원 전화번호부’는 내년 2월 정기총회에서 전달한다.

## 사우회 회장단, 차기 회장 후보로 차인태 회원 추천



11월 12일에 열린 사우회 회장단 회의에서 절대 다수 의견으로 차인태(ANN. 전 제주 MBC사장) 회원이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됐다. 정관 규정에 따라 차 후보는 내년 1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2월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동의를 얻으면 차기 회장에 취임하게 된다.

장 후임에 육창웅(편제)회원을 새 회장으로 선임했다.

골프대회는 11월 1일 오전 8시 06부터 16명이 참가한 가운데 충북 진천 에머슨 골프장에서 열렸다. 낙엽이 붉게 물들은 화창한 날씨에 열린 이날 대회에서 신고 핸디보다 한 타를 적게 친 김용빈(기술)회원이 우승을 차지했다. 준우승은 두타 차이가 난 김연두(관리)회원과 이

선호(보도) 회원이, 감투상은 세타 차이 스코어를 기록한 오정수(기술), 김휴선(보도) 회원이 각각 차지했다.

이날 시상 방식은 경기 시작 전 본인이 신고한 핸디캡과 가장 근사하게 친 회원에게 우승이 돌아가는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회가 끝난 뒤 회원들은 사의를 표한 안재기 회장 후임으로 김용빈 회원을 새 회장으로 추대했다.

MBC PLAYCE 10<sup>th</sup> Anniversary

# 키자니아

## 700만 고객 돌파!

대한민국 어린이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KidZania



## 역사의 낙관자<sup>樂觀者</sup>가 되어



유혜자(편제)

인사동클럽 (회장 장명호) 회원 19명이 안혜란 MBC라디오본부장의 초청으로 MBC를 방문한 것은 지난 9월 19일. 옥류관 냉면 맛보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갈망하며 지켜보던 2차 남북정상회담 이틀째 날이었다. 방송센터 로비에서 안본부장과 조정선, 김종민(홍보심의국) 국장이 선배들을 맞아주었다.

1971년 9월19일, 음질혁신의 스테레오방송 면모를 갖춘 FM 개국(91.9MHZ)을 앞두고, 방송 관계자들뿐 아니라 청취자들도 이날의 평화선언을 기다리던 만큼 간절했던 것을 생각하며, 김종민 국장이 안내하는 1층 '가든 스튜디오'에 들어갔다. 생방송 「여성시대를 마친 양희은 MC를 반갑게 만나고, 유리벽을 통해 바깥 청취자와 소통할 수 있는 넓은 스튜디오를 경이롭게 둘러보았다.

60년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

세...” 새마을노래를 부르며, 가난을 물리치려는 신념으로 일에 매진하는 국민들의 친구였던 시절의 라디오맨들은 초호화 건물과 각종 첨단시설에 금석지감을 느껴야 했다.

1층 “MBC월드” 한 쪽의 ‘골든마우스 홀’에서는 발길을 오래 멈췄다. 10~20년 이상 DJ 경력자들의 마우스 모형들을 보다가 고인이 된 이종환, 박원웅 마우스 옆의 버튼을 누르니 생전의 멘트가 흘러나와 센치해지는 마음을 누르며 9층 라디오본부 스튜디오로 향했다. 부장시절 오랜 경력의 DJ 경력자들에게 골든 마우스(20년)와 브론즈 마우스(10년)를 만들어 공로를 치하하는 아이디어를 실현했던 김일수 회원에게 어떤 마음이 교차했을까.

9층에선 생방송을 준비 중이던 <싱글빙글쇼>의 강 석, 김혜영 MC가 반겨줬다. 두 분 다 장수프로그램의 MC로 골든 마우스의 주인공들이다. 연대별로 프로그램 타이틀을 적어놓은 복도의 벽 앞에서 우리 일행은 회상에 잠길 수 있었다. 80년대 후반, 중파 900KHZ에서

95.9MHZ, 표준FM 수신주파를 확보하기에 힘쓴 장두원 국장과, 라디오드라마 전성기에 연출자였던 김포천, 김진희, 고무송, 김상옥 PD, 생활정보 파트의 PD들, 음악 PD, DJ(이종환, 박원웅, 김기덕) 외에 자신 이름을 내건 새벽 생방송 <안녕하세요 류제국입니다>의 MC였던 류제국 PD.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프로그램 타이틀을 붙였던 장명호 PD 등등, 오늘의 MBC를 이뤄놓은 힘의 바탕에는 자신들의 열정이 녹아있음을 반추해보았을까.

축록자 불견산<sup>不見山</sup> 麓者 不<sup>不</sup>見人-사슴을 쫓는 사람은 산을 보지 못하고, 돈을 움켜쥐는 사람은 사람을 보지 못한다-는 말처럼 높은 청취율과 보람에 안주하고, 성장과 격변의 시대를 살면서 절박한 업무로 다른 값지고 소중한 것을 추구하지 못했다고 회한에 잠긴 분도 있으리라.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 대본 작성(검토), 출연자 섭외, 연출 등등 포맷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참신한 아



이디어로 시사각각 분초를 다투며 일하던 긴장감을 10층 사무실의 후배 PD들을 보며 조금씩 기억했을 것이다. 발전되고 현대화된 시설이나 환경을 부러워하기엔 이미 멀리 와버린 우리 세대.

출중한 현역 후배들이 성의있는 선물과 맛있는 점심을 준비했다는 식당으로 향했다.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세상은 더욱 좋아질 것이라는 역사의 낙관주의자가 되어 발걸음을 재촉했다. 상암동의 가을 하늘은 참으로 쾌청했다.

## 지혜의 터전 명지산<sup>明智山</sup>을 넘다



송재우(보도)

간밤에 자욱했던 황사가 보슬비로 바뀐 3월 세 번째 일요일, 가평역에 내렸어도 비는 여전했다. 이번 산행은 목적지를 명지산으로만 정한 채 홀로 거침없이 내달릴 작정이다. 등산로 입구에서 조금 걸으니 승전사<sup>昇天寺</sup>가 나온다. 비구니만 사는 절이라서 그런가? 커다란 석불의 입술이 붉게 칠해져 있다. 명지계곡에는 두터운 얼음장이 긴 겨울의 잔해처럼 도처에 드리웠다. 계곡 쪽으로 위태롭게 서 있는 생강나무 가지에는 막 터트린 노란 꽃망울이 빗방울을 머금었다. 수정보다 맑은 빗방울에는 봄이 잉태되고 있었고 그 빗방울 속에는 우주가 담겨 있었다.

정상까지 약 6km. 중턱에 오르니 사방이 눈으로 덮였다. 중턱 위로로는 진눈깨비가 내린 것이다. 아

이젠을 차면서 야릇한 긴장감과 흥분이 교차됐다. 정상에 가까울수록 쌓인 눈은 두께를 더했다. 눈구덩이에 미끄러지며 다리가 꼬여 종아리에 스킨트 짚게 쥐가 났다. 상황은 불리했고 불길한 예감마저 들었다. 진눈깨비가 그친 정상은 물안개가 자욱했다. 지혜의 터전 명지산(1,267m)은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높다. 경관이 수려해 군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4개의 봉우리로 이뤄졌다. 주봉인 제1봉의 북쪽에 제4봉이 있고 제2봉과 제3봉은 주봉의 남쪽에 있다. 정상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사진에 담자마자 곧바로 남쪽의 2봉으로 향했다. 2봉에 닿을 때까지 사람의 발자국이 없는 눈길을 헤쳐 1km 남짓한 거리를 오는 동안 평소와 다르게 심신이 지친다.

갈증이 심해 수시로 눈을 쥐어 먹었다. 2봉(1,250m)에 도착해 배낭을 풀었다. 이번 점심은 나의 생명을 지킬 것만 같아 유독 소중하게 느껴졌다. 떡, 딸기, 오이, 삶은

계란을 준비해준 아내에게 감사했다. 음식의 3분의 1 정도는 남겨 두고 제3봉으로 향했다.

중간쯤 갔을까. 갑자기 왼쪽 다리에 마비가 왔다. 허벅지가 딱딱하게 굳어지며 통증이 몰려오더니 도무지 걸음을 옮길 수 없다. 처음 겪는 증상이다. 전화도 터지지 않고 인적도 없는 이곳에서 견지 못하는 것은 곧 저체온증으로 숨지는 것을 의미한다. 나무 밑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다리를 주무르니 어느 정도 걸을 만했다. 산행에서 믿을 것이라곤 두 다리뿐, 사람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부와 권력과 명예도 이런 상황에선 지팡이만도 못한 것이다. 일필휘지<sup>一筆揮之</sup> 같은 걸음으로 삶도 죽음도 관통하듯 나아가리라 다짐하며 다시 발을 옮긴다.

그럭저럭 제3봉(1,199m)에 당도할 무렵 물안개가 걷혔다. 시야가 트이면서 비로소 세상을 굽어볼 수 있었다. 눈 속에서 파파노인 같은 자태로 능선을 지키는 굴참나무와 고사목이 명지산에서 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인지 그 이유를 알 듯했다. 3봉부터는 내리막이다. 비단결처럼 새하얀 눈길에 미끄러지기를 십여 차례 하다 보니 아재비고개에 당도했다. 아재비고개를 기점으로 길은 연인산과 백둔리 쪽으로 갈라진다. 연인산으로 내달아 가평까지 20여km를 더 가는 대장정이다.

연인산으로 향하는 오르막을 100m 쯤 갔을까. 이번에는 오른쪽 허벅지에 마비가 쓰나미처럼 몰려왔다. 결국 여기까지였다. 눈물을 머금고 후퇴하기로 결정했다. 코스를 줄였어도 전체로는 20km가 넘었다. 개울가에 앉아서 아이젠을 풀고 남겨 두었던 음식을 해치웠다. 주변엔 잿빛 털로 선연하게 피어난 버들강아지가 눈에 들어왔다. 이제 봄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눈보라치는 겨울을 끔찍이도 좋아하던 사내의 마음은 능선에 남긴 발자국에 점철되었으리라.

힘겨웠던 명지산행은 미완인 듯 그렇게 막을 내렸다.

## 경·조사

## ■ 팔순 ■

주채영(미주) 12/10    신흥구(관리) 12/23    조무영(대구) 01/05  
서성하(관리) 01/07    허철만(미주) 01/11    金鍾顯(기술) 01/20  
송영수(편제) 01/20

## ■ 고희 ■

장인순(편제) 12/02    정종국(관리) 12/07    김상균(보도) 12/19  
임준석(기술) 12/24    홍종명(편제) 01/11    김순홍(대전) 01/17  
최신영(업무) 01/24

## ■ 회갑 ■

정연태(편제) 12/02    장근수(편제) 12/09    백종문(편제) 12/11  
이상원(편제) 12/11    천복용(기술) 12/13    안우정(편제) 01/01  
이형관(보도) 01/01    서문식(편제) 01/11

## ■ 결혼 ■

최재혁(ANN) 장남 10/06    김형태(편제) 아들 10/06  
김명철(기술) 장남 10/06    이석현(편제) 장녀 10/13  
구자걸(기술) 아들 10/13    전평국(보도) 아들 10/27  
조기양(보도) 장녀 10/28    이영곤(편제) 아들 11/03  
박영민(보도) 장남 11/10    김창제(편제) 아들 11/10  
이인재(편제) 장남 11/11

## ■ 부음 ■

최인준(관리) 상배 06/01    양재철(보도) 장인상 09/10  
장동철(기술) 장모상 09/11    김정수(미주) 장모상 09/16  
전용립(관리) 부친상 09/20    유태희(관리) 모친상 09/22  
김세하(감사) 장모상 09/24    안창균(관리) 모친상 09/27  
정남영(관리) 장인상 10/01    이성수(관리) 부친상 10/03  
김용철(보도) 부친상 10/04    이상훈(업무) 상배 10/04  
하광언(보도) 장모상 10/05    장한진(관리) 장모상 10/19  
김갑순(관리) 모친상 10/28    장덕수(편제) 장인상 10/28  
김명철(기술) 장인상 10/31    박용규(기술) 모친상 11/06

## 회원 / 회비관리

## ■ 신규입회 ■

전연식(편제) 010-8944-3209    성북구 정릉로 388

## ■ 연회비 ■

9월: 곽영범('18) 이진세('21~'22) 정상열('15~'16)  
10월: 김경일('18) 김삼량('18) 송기남('17~'18)  
최태규('09~'18) 황기찬('18)  
11월: 박용규('17~'18) 이상세('19, 80세 납부 끝) 이양길('17~'18)

## ■ 평생회비 ■

전연식(편제) 10/15

## 번호 / 주소 변경

임원 : 신견옥 용산구 이촌로 248  
임주완 중랑구 신내로 17길 83

편제 : 고장석 경기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 89  
김경철 영등포구 문래로 82  
김철영 성동구 독서당로 191  
박종덕 경기 양평군 개군면 개군로  
백종석 경기 용인시 기흥구 금화로 11번길 8  
선병조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7로 22번길 22  
유철환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 120  
이시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41  
이진섭 경기 오산시 수청로 166  
정계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48  
최영삼 강서구 방화대로 6가길 27

보도 : 김영일 경기 김포시 전원로 28  
정홍보 서초구 잠원로 117  
하광언 010-6371-3854

ANN : 권혁화 금천구 금하로 793  
박민정 경기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 89

기술 : 김영성 경기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51-17  
박건칠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 41번길 13  
신원호 관악구 보라매로 62  
임봉주 010-8772-4495

업무 : 이상훈 010-3767-0400  
차기동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153번길 6

관리 : 김영한 광진구 자양로 51길 11-15  
송기남 충남 금산군 금성면 진산로  
오범성 강서구 양천로 30길 77

##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임성전(춘천)**  
1년 전 대장암 수술을 받고 투병하던 중 9월 28일 별세했다. 향년 76세. 1975년 춘천 MBC에 입사해 총무국장, 편성국장 등을 역임하고 1998년 퇴직했다. 퇴직 후 주오랫사 대표를 지냈다.



**공대식(보도)**  
노환으로 9월 28일 별세했다. 향년 87세. 1973년 입사해 외신부 차장과 해설위원 등을 지내고 1980년 퇴직했다. 퇴직 후 명지대 교수와 한양대, 국민대 강사를 역임했다.



**양남종(관리)**  
2개월 전 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 10월 21일 별세했다. 향년 68세. 1983년 11월 총무부에 입사, 수송 업무에 종사하다 1997년 12월 퇴직했다.



**최태규(업무)**  
담도암 투병 중 10월 23일 별세했다. 향년 61세. 1984년 제작사업부에 입사해 근무하다 1994년 2월 MBC프로덕션으로 자리를 옮겨 제작 PD로 일하고 기획제작부장 등을 지냈다.



## 회/원/동/정



## 최원두(보도)

속초시 청호동 속칭 '아바이마을동산'에서 "그 시절의 이슬같은 순수가 방울방울 이어진 몇몇 기억이 아스라이 살아있는 그 곳"이라 새긴 望郷詩碑 제막식을 가졌다.



## 최성금(관리)

키자니아 창사 10주년을 맞아 9월 13일 잠실롯데호텔에서 기념식을 갖고 파트너 회사들에게 지난 10년

을 같이 해준데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 김상욱(편제)

(사)동의난달 운숙미술회가 주관하는 제10회 시각장애학생 미술작품 초대전을 서울 시청 지하 '시민청갤러리'에서 가졌다.



## 강성주(보도)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 내년 봄 전당대회 전까지 당협위원장의 교체 및

신진 정치인 영입 등 당 조직 정비와 강화를 위한 활동을 한다.

## 서정주(편제)



전직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언론중재위원으로 위촉돼 서울제8중재부에서 일한다. 정정, 반론, 추후

보도 및 손해배상 중재 업무를 수행한다.



## 최창섭(ANN)

10월 5일 이화여대 ECC관 모모아트홀에서 (사)수레바퀴 재활문화진흥회가

주관한 제1회 패럴 스마트폰 영화제 개막식 SNS 중계 공동사회자로 참여했다.

## 동/호/회/소/식

## 인사동클럽

라디오PD 출신들의 모임인 인사동클럽(회장 장명호)은 9월 18일 MBC FM개국기념일을 맞아 안혜란 라디오본부장의 초청으로 MBC사옥을 방문했다. 조정선, 김종민 부국장의 안내로 라디오본부 사무실, 녹음 스튜디오, 주조 등을 돌아보고, 후배 PD, 작가, 강석, 김혜영 등 함께 일했던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이어 인근 식당에서 식사와 담소를 나누며 선후배의 우의를 다졌다. 김포천 원로PD 외 19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 문기회

기자 출신들의 모임인 문기회(회장 정홍보)는 매월 세 번째 금요일 저녁에 정례 모임을 갖는다. 10월 26일 금요일 광화문 뉴국제호텔 모임은 비가 오면서 갑자기 추워진 날씨 탓에 평소와 달리 스무명 남짓 모였다. 이날 모임에서는 문기회를 이끌어 나갈 차기 회장단을 구성했다. 차기 회장에는 조기양, 부회장 양윤모, 운영부 그리고 총무에는 오상우 회원이 각각 선임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 손원록(관리)

전남 신안군 비금면 재경향우회장에 취임했다. 신안군 비금면은 바둑천재 이세돌의 고향이며 천일염의 최초 생산지다. 미네랄이 풍부한 새우젓의 고향이기도 하다.



## 박신서(편제)

부인 윤현봉 씨가 지난 4월 주프루나이 특명전권대사로 임명됨에 따라 부인과 함께 브루나이로 떠났다.

외교관 가족으로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 현명賢明하거든 웃어라



## 김 옥 군(편제)

그 흔한 '명퇴'가 아닌 60세 정년으로 퇴직한 중학교 동기동창이 있었다. 100세 바라보는 요즘인데 그 친구는 퇴직하고 3년을 조금 넘긴 어느 날 세상을 버렸다. 자살도 아니고 신체에 특별한 병이 있는 것도 아닌 그 친구가 죽은 원인은 후에 안 일이지만 '웃음'을 잃어버린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보니 퇴직 후 모임에 가끔 나타나던 그의 얼굴에서 좀처럼 웃음을 본 적이 없었다. 집에서 통 웃지 않고 살았다고 한다. 회사 퇴직하더니 사람이 그렇게 변하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웃지 않아서 죽어?"

'바흐'가 '음악의 아버지'라면 '웃음의 아버지'는 노만 카스스(미국의 저널리스트)를 꼽는다. 그는 나이 50세에 온몸이 시멘트처럼 굳어지는 '강직성 척수염'이라는 희귀병에 걸렸는데, 이 병에 걸리면

99%가 장애인이 되거나 죽게 되고 그는 극도로 비탄에 빠졌다.

그런 어느 날, 잠언箴言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기왕 죽을 것 실컷 웃고나 죽자'고 재미있는 코미디 비디오를 빌려다 보고 웃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몇 시간 동안 진통제 없이도 견딜 수 있었다. 본격적으로 호텔방을 잡아 매일 비디오를 보면서 웃는 생활을 했다. 그러자 손가락 한 개가 펴지고, 웃는 생활을 계속했더니 막혔던 혈관이 뚫리고 굳어졌던 몸이 차츰 회복이 돼 결국 '웃음' 한 가지로 희귀병을 완치했다. 이 일화로 그는 '웃음의 아버지'로 불리게 된다.

웃음은 의학적으로도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웃음의 심리학적 정의는 뜻밖에 어렵다. <원래 생리적 반응이지만 점차 호의, 양호, 안전 등의 사회적 전달형식으로서의 동기화가 덧붙여진다.> 프랑스의 철학자 앙리 베르

그송이 1900년에 저술한 <웃음 Le Rire>에서 그렇게 말했다. 그렇지만 동기화라면 꼭 무슨 목적의식이 있을 때만 웃는 것 같아 좀 언짢기도 하다. 사람이 웃는 경우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기쁨, 즐거움, 만족, 행복감을 느낄 때 웃음이 나온다. 그러나 부끄러움, 당황, 놀라움을 겪을 때도 웃음이 나온다. 그뿐인가. 남을 업신여길 때, 어떤 불균형한 상태를 볼 때도 사람은 웃는다. 미칠 때 웃는 웃음도 있다. 오래 동안 <사람은 왜 웃는가>에 대한 연구는 많았어도 '웃을 때 사람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연구는 없었던 것 같다. 동양인이 일찍이 체득한 '一笑一少'의 진리도 체득한 웃음의 건강학이었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었다.

몇 해 전 워싱턴에서 과학자들이 유머에 대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여기서 '웃으면 장수한다'는 여러 증거들이 제출됐다. 우선 웃음을 생물학적으로 분석하면 '적당한 운동과 맞먹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스탠포드대학의 윌리엄 프라이

박사는 '제자리 달리기'의 효과와 같다고 한다. 사람이 마음껏 한번 웃으면 배, 가슴, 어깨, 기타 모든 근육이 수축한다. 결과적으로 심장 박동이 늘어나고 맥박은 60에서 1백20으로 배가된다. 혈압도 1백20에서 최고 2백까지 올라간다. 웃음을 멈추면 근육은 정상으로 돌아가고, 힘껏 오므렸던 맥, 관이 펴지면서 스트레스나 고혈압 심지어 두통까지 깨끗이 몰아낸다. 장수를 위협하는 적들이 일시에 퇴각하는 셈이다.

웃음의 화학적 분석은 더욱 놀랍다. 웃을 땀 사람의 피에 아드레날린 효소가 증가한다. 이것이 맥, 관의 운동 자극제임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운동 시에는 베타 엔돌핀 같은 효소도 분비된다. 웃음 뒤에 심신이 한결 편해지는 것은 바로 엔돌핀이 진정, 마취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오래 살기 위해서라도 좀 웃을 필요가 있다. 웃음은 장수에 잘 듣는 약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됐으니까.



## (히)스토리가 있는 사진

사진 속에 역사와 애깃거리가 담겨있는 ‘(히)스토리가 있는 사진’ 코너입니다.  
사우회원님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 MBC 최초의 컬러 드라마 ‘암행어사’ 시절



이 병 훈(편제)

1981년 5월 어느 날, 무술드라마 "암행어사" 편집을 하고 있던 중 '갑봉이' 임현식씨가 '전날 촬영한 연기가 걱정된다'며 편집실로 찾아왔다.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환담하는 사진인데, 누가 찍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전날 촬영 중에 내가 연 기자들에게 보인 어설픈 시범을 임현식 씨가 흥내를 내며 익살을 부려서 파안대소하고 있는 내 모습이 새삼스럽다.

1981년 1월부터 시작한 무술사극 "암행어사"는 꽤나 인기가 있었는데, MBC에서 방송한 첫 컬러방송 드라마였다. 당시 신군부의 갑작스런 결정으로 컬러방송이 시작됐기 때문에, MBC에 컬러방송용 카메라는 스튜디오 카메라와 중계용 카메라 밖에 없었다. 그래서 야외 장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모두 뉴스용 보렉스 카메라로 촬영을 했다. TV제작국에서는 컬러방송의 특성을 살리고자 드라마들이 너도 나도 야외촬영을 시도했지만, 지금처럼 제대로 된 비디오 카메라가 없었기에 보도국에서 쓰는 뉴스용 필름(VNF)카메라를 활용했다. 그런데 VNF는 한번 찍으면 보정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찍을 때마다 조마조마했다. 네가필름은 감히 엄두도 못내는 사치품이었다. 게다가 "암행어사"의 무술 씬은 밤샘작업이 많아 야외화면은 늘 노출오버나 노출부족이었고 화면에 죽죽 비가 내리는 게 일상이었다.

"암행어사"는 TV에서 처음 선보는 무술사극이라 고정 배역인 이정길씨와 임현식씨 두 분 다 인기가 높았다. 그런데, 촬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양반 신분인 이정길씨에게는 "어사 나오리" 라고 부르며 깃들한 존댓

말을 쓰는데 반해 상민 신분인 임현식씨에게는 으레 "어이, 갑봉이. 어사 나오리 어디 계신가?"라고 하대하는 투로 말을 건넸다. 그럴 때마다 임현식씨는 분통을 터트렸고, 나에게 "이 감독,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나한테 양반배역 좀 주시오"라고 했다. 내가 봐도 사정이 딱해 "그러마"고 흔쾌히 약속을 했지만 임현식씨는 그 후 3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양반배역을 맡지 못했다. 세상에, 양반되기가 그렇게 어려웠을까.



### ‘푸른 신호등’, 그 전성기를 그리며



정 찬 형(편제)

교통정보방송 '푸른신호등'의 전성기인 1989년, 저녁 타임(6:00~7:00)에 서유석, 황선숙 공동 진행으로 퇴근길용 '푸른신호등 3부'를 방송할 때 사진이다.

통정보 외에 시사성을 가미한 '정치시평'을 집어넣으면서 청취율을 뒤흔들었고, 이 영향으로 KBS 교통프로그램 '가로수를 누비며'의 진행자 송 해씨가 내려온 뒤 여러 사람이 투입되지만, 사실상 새 진행자를 찾지 못하고 수년 후 폐지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푸른신호등'에 '정치시평'을 넣으려 하니까 당시 간부들이 '안된다'고 하길래 "운전정보만으로는 부족하다. 버스 손님들은 이런 정보를 원한다. 노태우 대통령의 6.29선언 다섯 번째 항목이 '언론자유 창달'인데 그게 이런 코너 하라는 거 아니냐?"고 주장해서 겨우 관철시켰다. 당시 목요일 코너 '정치시평'을 맡은 사람은 '김형욱 회고록'을 써서 큰 파란을 일으킨 김경재(필명 박사월)씨였다.

특히 기억나는 주제는 전노협 총파업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서 '노동자 총파업, 과연 가능한가?'라는 기획시리즈를 10회 연속으로 다뤘다. 신문에서 전노협 파업으로 나라가 망한다고 연일 특집 기사를 쓰는 것을 보고 "총파업을 하면 포항 고로가 굳는다는 것이 사실인가?"를 방송했다. 요즘 말로 하면 팩트체크를 한 셈이다. 취재차 노동문제 세미나를 찾아다니다가 플로어 발언하는 젊은 이병태 교수가 눈에 띄어 찍어봤다가 저 특집 때 모셔서 잘 활용(?)했었다.

내가 연출, 홍동식 이대현 두 PD가 AD를 맡았는데 한 프로그램에 3명

의 PD가 투입될 만큼 '푸른신호등'의 인기도 높았다. 당시 오프닝을 내가 썼는데, 내가 푸른신호등을 그만 둔 뒤에도 서유석씨가 찾아와 오프닝을 계속 써달라고 졸라서 "그건 옳지 않다. 새로 작가를 구하라"고 정중하게 사양했던 기억도 떠오른다. 나중에 이종환씨도 '지금은 라디오시대' 오프닝을 써달라고 찾아와 거절하느라 진땀을 흘렸었다.

홍동식PD는 현재 MBC아카데미 사장으로 일하고, 이대현PD는 훗날 대구민방으로 갔다가 목회한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어디서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





## 인터뷰

## 센서(Sensor)에 승부를 건다

MBC에서 퇴직한 후 '제2의 인생'을 바쁘게 살고 있는 회원들이 적지 않은데, 그 중 한 사람이 **최근진**(기술. LPHI 대표이사)회원이다. 구로디지털단지가 가까운 남구로역 인근 아파트형 공장에서 센서를 개발하고 제작하는 일에 열중하고 있는 최 회원을 찾았다.



**현업 때보다 더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하게 됐나요?**

부친께서 1988년부터 TV부속품과 LED, 반도체 부품 등의 생산 공장을 하셨습니다. 센서 제작은 2001년부터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보다는 소규모였죠. 2015년에 MBC를 퇴직하고 제가 합류하면서 본격적으로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제 아들이 저를 도와주고 있으니까 3대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센서의 활용도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 어떤 종류의 센서를 제작하고 있나요?**

주력 제품은 적외선 온도 센서입니다. 사람의 체온을 감지하는 센서로 현재 아이들 귀에 꽂아 체온을 재는데 쓰고 있죠. 그 외에 가스 감지센서, 압력 감지센서, 열 감지센서, 지문 인식기에 쓰는 센서 등을 주로 OEM방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방산품도 일부 생산하고 있구요.

**공장에 사람이 별로 안 보이던데 직**

**원은 몇 명쯤 됩니까?**

총 24명이 교대 근무로 작업합니다. 전 공정을 자동화했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경기 변동에 따라 수주 물량이 줄어들면 사업 부진으로 연결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의 인원도 많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 되도록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 쪽 일은 기술성 확보 뿐 아니라 엄격한 품질관리 및 인증을 위해 섬세한 손놀림과 치밀한 작업 능력이 필수적인데, 모두가 나름 경력이 있는 분들이라서 아주 효율적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월 4~50만개의 팩키지를 생산하고 있는데 불량률 거의 제로입니다.

**생산에 필요한 장비들이 독특하고 다양하던데 수입품인가요?**

독일에서 수입한 것도 있지만, 1~2년 넘게 연구해서 제 나름대로 새롭게 만든 기계, 우리나라에 딱 한 대 밖에 없는 기계도 있습니다. 그런 기계들은 생산량이 두 배가 되는데 모두 대외비죠. 얼마 전에도 중국 생산업자가 와서 상담을 진행하는 중에 은근히 기계를 보기 원했지만 안 보여줬습니다. 보여주면 바로 베껴 버리거든요. 그랬더니 상담을 바로 끊어 버립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만드는 곳이 현재 국내엔 없어요. 중국으로 많이 갔죠. 그래서 국내 경쟁사는 없지만, 그렇다고 연구 개발을 멈출 수는 없으니까 계속 새로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연구를 통해 나온 제품이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요. 그런데 그 실패라는 게 연구 과정에서가 아니라 마케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험난한 연구를 통해 간신히 신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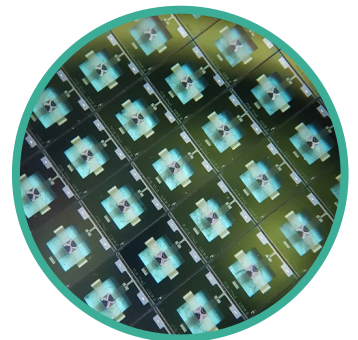
을 만들어 시장에 내놓으면 바로 해외에서 모방품을 만들어 싼값에 공급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또 신제품을 만들어도 유행을 타는 상품은 생명이 짧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재고품이 쌓여서 애를 먹죠. 저희도 그런 식으로 안 팔린 재고품이 저쪽에 있습니다.

**이 건물 안에 이런 아파트형 공장이 많은가요?**

전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중국이나 베트남 등 외국으로 옮긴 곳도 있고요, 생산해봐야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공장을 접은 곳도 많아요. 저희가 지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제조공장의 스마트화입니다. 스마트화라는 건 설계, 개발, 제조, 유통, 물류 등 전 생산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서 생산성이나 품질, 고객 만족도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능형 공장을 말하는데, 저희도 이쪽으로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 라인부터 정비해야 새로운 상품, 예를 들어 전기차 시장 확대에 대응하는 신제품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에 주력할 수 있거든요.

**앞날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됐을 것으로 보는데 센서 시장의 전망은 어떨습니까?**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스마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IoT 즉,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서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 받는 기술이나 환경이 확대되고 있죠? 또 무인 자동차, 스마트폰 등 이른바 '스마트 시대'에서



센서는 핵심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여러 군데에서 쓰이고 있지만, 앞으로 그 쓰임새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센서화'는 인간의 오감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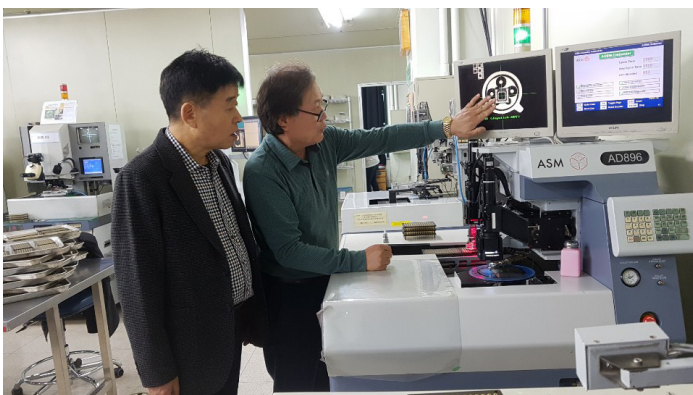
**아까 3대가 같은 일을 한다고 하셨는데 아드님도 이 일을 좋아하나요?**

네, 올해 34살이고 전자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일한 것은 오히려 저보다 선배가 되죠. 이 업계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저같이 나이든 사람들은 외부 사람들이 잘 안 만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안살림을 주로 하고 아들이 대외적인 업무 일체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진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배워야죠.

**그렇군요.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해서서 획기적인 상품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사우회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이 있는데요, 사우회원들 중에 혹시 괜찮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꼭 제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주력 사업인 센서 제조, 반도체 패키지를 바탕으로 하되, 다방면의 기술개발을 통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반도체 비즈니스 시장에 발빠르게 대처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참신한 아이디어거든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우리 사우회원들인 만큼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 사업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담: 최 천(기술. 편집위원)





## 몇몇 기억이 살아있는 그 곳



최 원(보도)

그날, 비가 몹시 내렸다.  
“망향의 눈물이군!” 누군가 빗속을 지나며 나에게 건넸다. 10월 5일, 태풍 ‘콩레이’ 한국 상륙 하루 전, 강원도 속초시 ‘아바이 마을’ 화단의 풍경이다. 이 풍경이 있기까지는 한 이태 전으로 시간을 옮겨 놓을 필요가 있다. 그 날도 마산 늪은이 몇이 용산 어디쯤에서 초밥 부스리기 몇 점을 주워 먹으며 한담을 나눴다. 이 얘기 저 얘기 끝에, 내가 얼마 전에 발표한 망향시 <속초에 가면>을 예로 들며 “나 죽으면 부의금 받아서 장례 치르고, 남으면 망향시비 속초에 세워 다오”라고 유언조 당부를 했다.

어느 날, 일없이 속초를 찾아 대포항, 동명항을 기웃거리다가 고향 원산의 생선들을 발견한다. 도루묵, 청어, 가자미, 털게들의 얼굴이 원산 집의 밥상에서 만난 애들과 꼭 닮았다. 그리고보니, 속초에서 원산은 120km, 3백리, 자동차로 한 시간 거리. 숨소리가 들릴 것 같았다. 지척에 고향이 있다는 것은 대 발견이었다. 점차 하는 일이 줄어들면서 속초 발길이 뻗었다. 백수가 되면서부터 아내와 호화판(?) 결혼기념 여행도 이곳이었다. 아내는 ‘해마다 왜 추운 겨울에 이곳으로만 기념여행을 오느냐’고 투정이었다. 심지어 대포항에서 우연히 만난 술친구 ‘칠성’씨를 양아들로 삼으며 이곳과의 연고를 넓혔다. 이런 과정에서 시 <속초에 가면>은 자연스럽게 숙성되어 갔다. 그리고 ‘고향 가까운 곳에서 못자리’ 살피듯 자연스럽게 속초가 나의 망향시비 <속초에 가면>을 품었다.

나의 ‘유언조 당부’가 있는 지 한 달쯤 지났을까. 두 번째 시집 <푸른 노을>을 더욱 푸르게 꾸며준 그 친구가 “죽은 다음에 시비 서면 뭐 하노? 살아 생전에 서야지”하는 바람에 <속초에 가면>은 <속초에서>로 개작되고, 아바이 마을 화단에 나의 망향시를 한자 한자 새겼다. 서예가 盧齋 尹坂 技씨의 작품이다.

속초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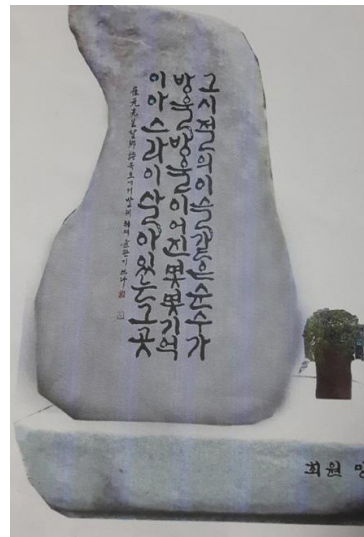
남은 귀향길 삼백리  
도루묵 그물털이가 한창인 속초항에서  
비린 개바람 타고 훌쩍 원산항으로 날아간다

명태 따는 엄마들 손품로 위에서 익어가는  
명란구이  
동네 개패쟁이 모다구에 실명하는  
덕장의 북어들  
안변 능금밭에서 저절로 익어가던  
한 알의 추리  
청어 미끼로 낚아 올리던 철공장 석축의  
뒤릉 털게  
그 신명을 개천에 띄우고  
희희낙락으로 맥 감던 우리들

만나고 싶은 유년이 새록새록 돌아난다  
살 길 찾아 떠난 연어때가  
왜 남대천으로 되돌아 올까  
살 길 찾아 떠나 온 내가  
왜 그 곳을 못 잊어 할까

탓하지 마라  
내가 자라던 그 일상의 습관  
그 시절의 이슬같은 순수가 방울방울 이어진  
몇몇 기억이 아스라이 살아 있는 그 곳\*

죽어서라도 동해 바다 큰 너울에 올라앉아  
흘러흘러 그 곳에 가고 싶다



## 불가능한 것을 갈망하는 그 사람을 난 사랑합니다 (괴테의 파우스트 2부)



김 승 수(편제)

프라이에 뷔네. 우리극장 50년 행사>에서 주한독일문화원장 마를라 슈투켄베르크 박사로부터 “불가능한 것을 갈망하는 그 사람을 난 사랑합니다. 한국 연극의 발전을 위한 특별한 공로를 기리고, 지난 50년 동안 영감과 용기와 창의성에 감사한다”라고 적힌 감사장을 받았다. 부상으로 아힘 프라이어의 유화 1점도 받았다.

1968년 봄, 서울 드라마센터에서 전국 독문학과 학생들의 극회劇會 ‘자유무대’란 뜻의 ‘프라이에 뷔네’가 첫 공연을 올릴 때 무대감독으로 참여했던 나는 답사를 통해 “당시 우리에게 생각과 표현의 자유를 알게 하고, 연극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신념을 갖게 해준 독일의 극작가들, 브레히트, 뒤렌마트,

프리쉬, 그라쓰, 한트케 등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날 행사에서는, 68년 당시 초연작初演作인 하우프트만의 ‘해 뜨기 전’부터 2017년 베를린 연극제 작품상수상작인 본 박의 ‘으르렁대는 은하수’ 까지, 국내에서 초연한 독일 희곡들 5작품의 핵심 장면들을 당시 연출자 4명이 갈라 공연을 했다. 거리극의 대가 임수택이 남산에 있는 독일 문화원 건물 밖에서 야외공연을 하다가, 마지막은 실내에 들어와 한트케의 ‘관객 모독’을 하고, 거기서 ‘50주년 기념식’을 하고 만찬으로 마무리했다.

나는 이번 행사의 집행위원장을 맡았고, 1968년 겨울 명동 국립극장에서 극단 가교와 합동 초연했던 뒤렌마트의 ‘노부인의 방문’ 1막 마지막 장면을 연출했다. 어려서 남자에게 배신당한 한 여자가 큰 부자가 되어 경제적 공황에 빠진 고향을 방문해 ‘돈을 널테니 차기 시장으로 당선된 배신한 옛 남

자를 죽여 달라’는 요구를 하는 장면이다. 돈과 정의의 문제였다. 그 연극 2막에서 고향사람들은 결국 돈을 선택하고, 노부인은 엄청난 돈을 내놓고 죽은 옛 애인을 데리고 떠난다는 줄거리다.

20대였던 우리가 70대 전후로 바뀐 지금, 다시 연극을 하고 세미나를 하고 팸플릿을 만들고 노래를 연습하면서 시동은 늦게 걸렸으나 일단 도로로 진입을 하니 안전하고 재미나게 목적지에 도달했다. 심양홍, 예수정 등 전문배우도 있었으나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는 친구들이 부산, 대구, 포항, 서천, 평택에서 올라와 앙상블을 위해 땀 흘리는 연습으로 그 더웠던 여름을 보냈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막식 연출을 한 양정웅, 공연학박사인 드라마투르크 이단비, 지난 10월 베를린 폴크스 뷔네에서 초연한 ‘삼십억 자매’(체홉의 세 자매를 패

러디한)를 쓰고 연출한 독일의 극작가 본 박, 작년도 콘텐츠진흥원 스토리공모 대상 수상작가 황여름, 2016년 베를린시 공모 작곡상 수상자 김용희, 부퍼탈오케스트라 첼리스트 박현우 등 국내외 예술가로 성장한 우리의 2세들과 그 부모들의 대화로 마냥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세들 모두가 스스로 자기 일을 개척해 나가는 대견한 아이들이다 보니 “부모를 닮지 않아 다행”이라며 우리는 폭소를 터뜨렸다. 그리고 보니 우리도 ‘부모 뜻대로’ 살지 않았음을 그날 새삼스럽게 느꼈다.

연극도 그렇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막히면 의심하고, 남이 하지 말라는 것도 해보고, 이미 있는 것도 새롭게 만들어 내고, 평가받고 성장하고 늙어 가는 게 아닐까? 갈라 공연을 하며 이동 중 독일문화원 문화부장은 원장 뜻인 양 ‘내년에도 또 하자’고 귀띔했지만 난 웃기만 했다.



## 김 선생님의 동전 자루



한귀현(업무)

“하필이면 오늘따라 왜 이리 늦는 거야!” 성탄절 전날, 입금표(광고료 수금 영수증)를 두 장 들고 오전에 나간 김 선생님(당시 나

이 많은 평의원 호칭)이 퇴근시간이 다 되도록 들어오지 않는다.

사업부 쪽은 모두 퇴근해 버렸고, 업무관리부에는 나 말고도, 나 이 많은 수금사원이 들어오지 않아 차마 퇴근을 못한 업무부장님과 이 차장님이 캐비닛에 올려놓은 TV를 보며 담배만 태우고 계셨다.

유리창 너머 문화체육관 올라가는 골목은 희미한 가로등이 어둠을 밀어내고 있고, 그 위로 굵은 눈송이가 하나 둘 날리고 있었다.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안 눈 내리는 덕수궁 돌담길은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설렌다. 오늘은 소개미팅 망년

회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생각도 잠시,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고, 경리부 입금담당 선배의 가시 돌친 목소리가 귀청을 때린다. “도대체 오늘 수금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몇 시냐구?!” 나 때문에 퇴근을 못하고 있으니 난리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윽고 김 선생님이 급하게 들어서는데, 옷에 희끗희끗 눈이 묻어있었고 어깨에는 아주 허영계 눈이 쌓여 있다. “쫄쫄, 눈이나 털고 들어오시지” 속으로 핀잔하며 가까이 가보니 쌓인 눈이 아니라 하얀 형글로 만든 자그마한 자루를 어깨에 메고 있었다.

“김 형! 왜 이리 늦었어? 무슨 일이 있었나?”라는 부장님 말씀에도 아랑곳 않고 털썩 자리에 앉은 그는 담배에 불을 붙여 깊숙이 빨아뿔은 뒤,

“한 형, 늦어서 미안해. 거 왜 oo 제약 미수금 있잖아, 광고비 300은

수취어음 석장에 이서해 받았는데, 부가세는 그냥 미수로 남기자는 거야. 근데 이거는 해 넘기면 악성채권이 되고, 언제 받을지 모르잖아. 그래서 달라고 우겼더니 글썽, 동전으로라도 가져가겠냐는 거야. 실랑이 하다가 그냥 받았는데, 경리가 아가씨 둘이 세었다니까 맞을 거야 30만원”.

말없이 지켜보던 이 차장님이 사태를 짐작한 듯, “아, 뭐해! 빨리 세워서 경리부로 넘겨야지” 하시면서 동전 자루를 책상에 좌르륵 쏟았다. 100원짜리 동전 무더기는 책상 위에서 갈치 눈깔처럼 하얗게 빛을 내고 있었다.

허겁지겁 수금명세서를 작성하고, 동전 세기에 열중하던 그 때 전화벨이 길게 두어 번 울렸지만 경리부 선배의 독촉이라 생각돼 무시하고 동전세기에만 열중했다. 드디어 동전 300개씩을 넣은 보따리 10개를 안고 경리부로 내려가니 골이 잔뜩 난 선배는 등을 돌리고 앉은

채 쳐다보지도 않는다.

늦었다! 총알처럼 계단을 뛰어 내려가 현관에 다다르니 건너편엔 영덕정에서 빼갈이라도 한 도꾸리씩 했는지 목소리 거나한 선배 몇이 고구려다방으로 가고 있었다. 나는 미팅 장소인 덕수제과로 숨차게 달려갔지만 이미 자리를 옮긴 듯 아무도 없었다. 아!! 아까 안 받았던 전화가 불현듯 머리를 스쳐간다. 아무튼 그날 소개미팅 망년회는 망쳤다.

문경희(문화.경향 광고인) 신년 인사를 나누는 날. 선배.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며 노 선배님들의 근황을 듣는다. 안타깝게도 그때 동전을 수금해 오셨던 김 선배님은 요즘 다리가 불편해 바깥출입을 못한다는 소식이다. 잠시 그날을 상기해 보면서 “김 선배님, 다리 떨지 말고 가슴 떨리는 건강한 노년 되세요” 라고 마음속으로 기원해 본다.

### MBC 문화방송 사우회 회원을 위한 세란병원 건강검진 이벤트

## 정밀·암 종합 건강검진

**특가  
EVENT  
30만원**

MR / CT  
특수초음파  
대장내시경  
(택2)

뇌MRI 뇌MRA <MR 검사는 1부위 선택 가능>  
 뇌CT | 저선량폐 CT | 요추 CT | 경추CT | 관상동맥 CT  
 심장초음파 유방초음파  
 대장수면내시경

+

공통검사

여자: 복부초음파, 갑상선초음파, 골반초음파  
 남자: 복부초음파, 갑상선초음파, 전립선초음파  
 위내시경(수면비포함), 부인과검사(유방촬영, 자궁경부암), 심전도검사, 체성분검사, 안과검사,  
 청력검사, 흉부X선검사, 기본진료, 당뇨검사, 신장기능검사, 간기능검사, 갑상선기능검사,  
 A형간염검사, B형간염검사, C형간염검사, 고지혈증검사, 일반혈액검사, 골밀도검사, 종양표지자검사,  
 소변검사, 대변검사 등 80여가지 혈액검사

※ 검진 시 응급제거나 조직검사가 추가될 경우 개인에 따라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세란병원**  
SERAN GENERAL HOSPITAL

예약 및 문의 **1577.0196**

### 세/란/병/원/건/강/검/진/센/터

진료, 검사, 수술, 병동, 회복, 애프터케어까지 모든 토탈케어를  
 각 분야 전문의로부터 일반 검진센터에서는 느낄 수 없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드립니다.

외부전경	1층로비	1층상당실
영상촬영실	MRI/MRA	CT
내시경실	혈액검사실	피부미용시술 클리닉
접수처	내시경 회복실	검진 휴게실
개인력카	상담실	검진 대기실
혈압측정실	100여가지 침단장비	침단 RFID 시스템
응급실	최첨단 수술실	메디칼 서비스(숙박검진)